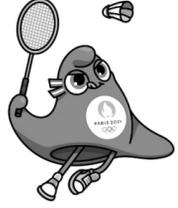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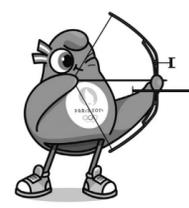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생정보 스페셜 30 올림픽 하이라이트	00 광주 MBC 뉴스투데이 30 2024 힘내라! 광주 추석맞이 선물박람회	10 KBC 모닝와이드 30 SBS 파리 2024 하이라이트
8	25 KBS광주 열린마당	00 2024 파리 올림픽 증계석	30 2024 파리올림픽 하이라이트 파리 타임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날	55 SBS 10 뉴스
10	00 방학특선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다큐 인사이드(재)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11	40 팔도밥상 스페셜(재)	00 KBS 드라마 스페셜 셀렉션 <사교댄스의 이해>		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5 올림픽 하이라이트 봉주르 파리	20 생활의 발견 스페셜 30 하이엔드 소금쟁이(재)	00 12 MBC 뉴스 20 2024 파리올림픽 하이라이트	00 SBS 12 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SBS 파리 2024 하이라이트
1	00 방학특선 아주 사적인 여행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0 시크릿 주주 별의 보석 25 이 맛에 산다 55 2시 뉴스 외전	
2	00 KBS 뉴스 10 토크멘터리(재) 40 남도스페셜(재)		55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양궁/유도/수영>	00 뉴스브리핑
3	00 전국을 달린다(재) 1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00 여기는 파리 <배드민턴/양궁/사격/탁구/유도/골프>		00 SBS 파리 2024 <배드민턴/양궁/탁구/유도/수영>
4	00 2024 파리 올림픽 <농구 3X3/서핑>			
5			30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양궁/유도/수영>	
6	10 2024 파리 올림픽 <농구/육상>			
7			00 MBC 뉴스데스크 40 2024 파리올림픽 <양궁/유도/배드민턴>	
8		00 여기는 파리 <탁구/양궁/배드민턴/유도/골프>		00 SBS 8 뉴스 15 KBC 8 뉴스 30 SBS 파리 2024 <양궁/탁구/배드민턴/유도>
9	00 KBS 뉴스 9 50 2024 파리 올림픽 <축구>			
10				
11				
12	10 2024 파리 올림픽 <테니스/트램플린/육상/BMX 레이싱>			



TV프로그램 3일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스튜디오 K 스페셜(재) 40 이웃집 찰스(재)	00 기본 좋은 날(재)	00 청남대 재즈토닉(재)
7	50 남북의 창	40 올림픽 하이라이트 <봉주르 파리>	00 MBC 뉴스투데이 20 2024 힘내라! 광주 추석맞이 선물박람회	10 헬로카봇 스타가디언 30 꼬마해녀 몽니와 해너특공대 2
8	3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20 2024 파리 올림픽 증계석	10 차징 탑스피너 BX 30 탑나는 TV	00 캐리와 친구들 30 SBS 파리 2024 하이라이트
9	30 KBS 뉴스 40 걸어서 세계속으로		30 2024 파리올림픽 하이라이트 파리 타임	
10	30 팔도밥상	2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50 광주MBC 보다 스페셜	00 힐링 여수야
11	10 사랑의 가족	50 영화가 좋다 <여름방학 기획>	30 시청자가 만드는 TV	10 해남 송호해변 여름축제기념 KBC축하쇼
12	00 KBS 뉴스 10 국악한마당		00 여영차 바다야 30 MBC 뉴스 40 폭쉬면 다행이야 스페셜	10 SBS 뉴스 20 골 때리는 그녀들 -세계관의 확장(재)
1	05 KBS 네트워크 기획 <올라온다> 55 여긴 어디	00 신상출시 팬스토랑(재)		
2	00 가요무대(재) 55 생로병사의 비밀(재)	30 여기는 파리 <유도/배드민턴/사격/양궁/골프/수영/펜싱>	20 2024 파리올림픽 <유도/배드민턴/사격>	20 SBS 파리 2024 <양궁/배드민턴/유도/수영/골프>
3	45 2024 파리 올림픽 <육상>			
4				
5			50 MBC 뉴스데스크	00 SBS 뉴스 10 신들린 연애(재)
6	00 2024 파리 올림픽 <농구>		20 2024 파리올림픽 <양궁/펜싱/수영>	00 더 매직스타
7				00 SBS 8 뉴스 15 KBC 8 뉴스 30 SBS 파리 2024 <양궁/탁구/배드민턴/체조/유도>
8		00 여기는 파리 <양궁/펜싱/유도/탁구/배드민턴/체조>		
9	00 KBS 뉴스 9 30 2024 파리 올림픽 <사격/사이클/조정/테니스>			
10			20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 25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유도/체조>	
11				
12				



TV프로그램 4일

	KBS1	KBS2	MBC	SBS/KBC
6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기본 좋은 날(재)	00 SBS 뉴스 10 꾸러기 탐구생활(재)
7	00 KBS 뉴스 10 한국인의 밥상(재)	00 KBS 재난방송센터 10 영상앨범 산 40 올림픽 하이라이트	00 MBC 뉴스 10 주니토니아야기 25 똑딱구조대 3 40 2024 힘내라! 광주 추석맞이 선물박람회	10 마법여우 주비 2 25 헬로카봇 스타가디언 40 KBC양꼬리다큐 사립사는 마을, 양림동
8	00 일요진단 라이브	20 2024 파리 올림픽 증계석	35 2024 파리올림픽 하이라이트 파리 타임	35 SBS 파리 2024 하이라이트
9	0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TV 동물농장
10	10 TV쇼 진품명품	20 팝업상륙작전(재)	40 신비한TV 서프라이즈	55 생활의 달인 스페셜
11	00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40 2장 1장(재)	55 MBC 뉴스	40 SBS 뉴스 50 굿파트너(재)
12	00 KBS 뉴스 10 전국노래자랑	55 미녀와 순정남 스페셜	05 가요베스트	
1	3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2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2	20 이웃집 찰스(재)	25 여기는 파리 <배드민턴/양궁/골프>	50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양궁/골프>	20 SBS 파리 2024 <배드민턴/양궁/골프/육상>
3	10 다큐 인사이드 <로드 투 파리 수상학>(재)			
4	00 2024 파리 올림픽 <비치발리볼>			
5				
6	00 2024 파리 올림픽 <육상>		20 MBC 뉴스데스크 50 2024 파리올림픽 <양궁/체조/골프>	30 SBS 8 뉴스 50 KBC 8 뉴스
7		55 여기는 파리 <양궁/탁구/체조/배드민턴/골프>		10 SBS 파리 2024 <양궁/배드민턴/탁구/골프>
8				
9	00 KBS 뉴스 9 30 2024 파리 올림픽 <사격/복싱/사이클>		55 50 2024 파리올림픽 <양궁/체조/골프>	
10				
11				
12				30 SBS 파리 2024 <골프/수영/육상>



BTS 지민, 신곡 '비 마인' 영어 버전 오늘 공개

솔로 2집 '뮤즈' 수록곡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지민)이 2일 신곡 '비 마인' (Be Mine)을 영어 버전으로 발매한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1일 밝혔다. '비 마인'은 지민이 지난달 19일 발매한 솔로 2집 '뮤즈' (MUZE)의 수록곡이다. 아프로비트(afro-beat) 장르의 노래로, 매력적인 사운드와 본능에 충실한 가사가 관능

적인 인상을 주는 곡이다. 지민은 '뮤즈'에서 사랑을 주제로 자신을 둘러싼 영감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다. 신보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2위로 진입했고, 타이틀곡 '후' (Who)는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8일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일 (음 6월 28일 戊戌) ☎ 010-9790-8237

36년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48년생 변화는 새로운 발전을 기약할 것이다. 60년생 지지부진했던 일이 완전한 결말을 짓게 되는 날이다. 72년생 옛 인연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니 그에 따른 준비를 하자. 84년생 다른 곳 처다보지 말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 96년생 지나질 뻔한 것 속에 귀중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2, 99	42년생 기세가 등등하니 웬만해서는 당해내지 못하겠다. 54년생 본디의 상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다. 66년생 작은 불뎀은 보이나 결코 커다란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78년생 상대의 의사를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90년생 합리적인 시각으로 대응하자. 02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9, 66
37년생 자유롭게 뜻을 펼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을 수다. 49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알라. 61년생 여러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게 되리라. 73년생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85년생 오늘의 고생은 미래의 행운을 부를 것이다. 97년생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03, 79	43년생 평가가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행하자. 55년생 빨리 끊는 물이 쉽게 식는 법임을 알고 의연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67년생 주관을 갖고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79년생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유익하다. 91년생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03년생 절제 속에서만이 건설한 진보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68
38년생 활기찬 하루가 될 것이니 용기백배하자. 50년생 원천적으로 금하는 것이 안전을 도모한다. 62년생 산뜻한 새 모습으로 과감하게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74년생 얼마나 실용적이나에 따라서 효과와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 86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98년생 오래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행운의 숫자 : 17, 81	44년생 애초부터 마음에 걸렸던 것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56년생 천성과 습관이 걸림돌로 작용하여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68년생 겉모습과 실제의 형편은 확연한 차이가 있을지니라. 80년생 이치에 밝다면 사물을 얹매이지 않는 법이다. 92년생 단호히 조처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04년생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행운의 숫자 : 27, 75
39년생 망설이면 분명히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느니라. 51년생 직접 찾아가서 깔끔하게 처리해야 명쾌하리라. 63년생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상당하겠다. 75년생 음양의 기운이 교체하는 시기이니 신중을 거듭하라. 87년생 힘들기는 하지만 거들어 주는 이도 있다. 99년생 새로운 것에 행운이 깃들여 있다. 행운의 숫자 : 38, 60	45년생 허심탄회한 자기 성찰 속에서 발전이 보인다. 57년생 생각의 늪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엄청난 해를 입게 된다. 69년생 목적해 왔던 바와 만나게 되는 뜻깊은 날이 될 것이다. 81년생 깔끔한 외관과 기교 속에 맹점이 숨어 있다. 93년생 평판을 의식하다 보면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05년생 생일전 결실을 거두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3, 98
40년생 행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게 되어 있다. 52년생 매우 부담스럽고 벅찬 하루가 될 것이니라. 64년생 나가는 것은 차치하고 들어오는 것에 신경 써라. 76년생 얼마 정도의 규모와 강도로 지속하느냐의 문제이다. 88년생 기존의 것을 지키는 데 주력함이 현명하다. 00년생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난국에 봉착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6, 56	46년생 침착해야만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느니라. 58년생 격리되거나 이동할 수도 있는 기운이 다분하다. 70년생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아예 만들지 말라. 82년생 구색을 다 맞추려다 보면 실기하고야 말 것이다. 94년생 융통성을 발휘하여 파격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 06년생 조건이 호전되면서 훨씬 쉬워진다. 행운의 숫자 : 14, 95
41년생 근본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 53년생 활로를 열어 줄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된다. 65년생 새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검증되지는 않았다. 77년생 생애이졌을 때에 귀중한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이니라. 89년생 주저하지 말고 실행해야 해결될 것이다. 01년생 주변 사람의 괴로움을 보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5, 87	47년생 평상시에 해오던 방법대로만 행한다면 손쉽게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59년생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다. 71년생 지나치다면 위험한 행국을 자초할 수도 있느니라. 83년생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95년생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행운의 숫자 : 09, 77